무의탁 노인들 정성모아 더 어려운 이웃에 '자비행'

맹인불자회·법륜회·곰두리 차량봉사대도 보시행 '열심'

"우리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

불우한 처지에 놓여 주위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우이웃들에게 보시행을 펼치는 자비나눔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노인들, '맹인불자회', 신체장애인 불자모임 '법륜회', 곰두리 차량봉사대가 바로 이 미담의 주인공들.

미아 6동에 사는 박숙자할머니(72)는 오는 20일 파주 관음대비양로원 위문갈 날을 꼬박 기다리고 있다. 박숙자할머니는 노동을 하는 아들과 손자와 근근이 살아왔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월세방마저 쫓겨날 정도로 생활이 궁핍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매일 미아자비의 집에와 점심을 먹는 노인들중 하나이다.

이렇게 미아동과 상계동 자비의 집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무의탁·생활보호대상자 노인 1백여명이 오는 20일 양로원 노인들을 위문갈 계획을 세웠다.

매년 자비의 집에서는 불우노인들을 위한 단풍놀이를 실시해 왔는데 이번엔 노인들이 놀이 대신 "우리보다 더 외롭고 소외된 처지의 노인들을 위문하자"는 발심을 낸 것. 이들은 이때부터 자비의 집에 모금함을 만들어, 올 때마다 10원도 넣고 100원도 넣었다. 지금까지 모인 돈이 40여 만원. 물론 이중에는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들의 격려금도 들어 있지만 이 성금으로 관음대비양로원 노인들의 겨울 난방비를 보조하고 노인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준비해 갈 예정이다.

대구 대광맹인불자회(회장 이재달)는 오는 11월11일 부산 문화회관에서 기금마련을 위한 춤공연을 개최한다. 공연에서 나온 기금은 시각장애인 자녀들의 장학금과 양로원·감호소 등 소외된 곳을 방문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서울의 시각장애인 모임인 혜광맹인불자회(회장 김부봉)도 회원들의 회비를 알뜰히 모아 2년째 소년소녀가장 4명에 매달 3만원씩 학비를 전달하고 있다.

신체장애인불자모임인 법륜회(회장 이영균)는 운전기사불자회 법륜회(회장 원상식)와 함께 노원구 각 동의 장애인 가구와 생활보호대상자 5가구씩을 선정해 김장보시를 계획하고 있다. "보호자 없는 장애인들 중엔 10년이상 밖에 나가보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하다"는 이영균회장은 "따라서 겨울철이 다가와도 김장준비가 어려워 김장보시를 무척 고마워한다"는 것.

지난 88년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자'는 취지로 설립된 곰두리차량봉사대(회장 김만용) 역시 전국 12개지부 7백여 회원이 무보수로 장애인의 각종 행사 참여를 도와주고 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보시행도 소중하다. 그러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우이웃을 보살피고 보시를 펼치는 일은 함께 사는, 따뜻한 정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이뿐 아니라 보시받음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며 나도 남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보시가 또 하나의 보시행으로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이들 어려운 이들의 자비행이 더욱 돋보이고 있다. 〈이경숙 기자〉



◇고려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연동사지 석조 지장보살상과 땅에 묻혀있던 3층석탑의 옥개석.

폐사지에 노천법당 선다

전남 담양 연동사지… 2천좌 지장보살 안치

수백년간 방치됐던 폐사지에 대형 노천법당이 조성된다.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산 8부능선에 위치한 연동사지(煉洞寺址)가 2천좌의 지장보살상을 안치하는 대형 노천법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연동사지의 복원은 담양읍내에 위치한 용화사의 원행스님이 결성한 청년회와 담양군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연동사지에는 무너진 3층 석탑과 석조지장보살입상(전남도문화재자료 제188호) 그리고 수성암 암벽에 형성된 감실, 옛 건물 벽면으로 보이는 흑벽담의 벽화흔적들이 남아있다.

금성산성 남쪽 약 5백미터 지점의 협곡(이천골)에 방치돼 있는 연동사지에서는 최근 석조지장보살상에 대한 발굴이 실시돼 땅에 묻힌 보살상 전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인근의 3층석탑 3층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옥개석도 출토됐다. 지장보살상의 높이는 2백67㎝이며 조성연대는 고려하대의 것으로 추정(성춘경박사 조사결과)되고 있다.

연동사의 창건 연대등 사력에 대한 자료는 상세히 전하지 않고 있지만 〈동국여지지〉 등 사료에 연동사가 언급되고 있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에 "고려 문종대의 학자 이영한이 어린시절 연동사에서 공부했다"는 기록이 있어 이 절이 고려초기의 사찰일 가능성도 높다.

특히 연동사지가 위치한 이천골은 정유재란때 이 지역 민간인 2천명이 왜군에 학살된 곳. 때문에 연동사지 복원은 2천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지장보살 2천좌를 안치하는 법당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법당조성은 사지정비가 끝나는 내년초부터 본격화된다.

최근 주변에 흩어진 3층석탑의 탑신들을 파악한 원행스님은 오는 11월23일 3층석탑 복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담양=임연태 기자〉



◇허흥식교수



◇현각 스님



◇성본 스님

조계종 기원·신라禪 조명

보조사상硏, 21·22일 학술회의

허흥식교수 나옹법통설 강조…14산문 주장
현 각 스님 무설토론 앙산유래설 '의문' 제기
성 본 스님 구산선문은 한국禪 초기단계

한국 선불교의 연원과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같은 의문에서 구산선문과 낭혜무염(郎慧無染:800~888)의 무설토론(無舌土論)을 중심으로 한국선의 원류를 조명하는 학술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이 10월21~22일 송광사 사자루에서 '한국선의 원류-나말려초 구산선문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여는 이 학술회의는 구산선문의 성립과 성격, 낭혜무염의 무설토론을 중심으로 조계종의 기원과 전개, 신라선의 사상적 특징을 조명한다.

특히 이날 허흥식(정신문화연구원)교수는 '조계종의 기원과 전개'를 통해 그간 주장해 온 '나옹(懶翁)법통설'을 다시 강조하면서 통설(9산문)과는 달리 14산문을 주장한다. 허교수는 "고려초기까지 14산문이 골격을 이루고, 중기에 천태종을 기반으로 흡수된 5산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9산문은 11세기말까지 존속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구산선문의 성립과 그 성격'을 발표하는 김영태(동국대)교수는 구산선문의 연원과 사상적 특징을 역사적으로 조명한다. 김교수는 구산선문의 성격을 "고려초에 확립된 조계혜능을 조사로 하는 해동의 선종" 또는 "남종선(南宗禪)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의 초기 禪세계"로 규정한다.

구산선문은 신라 41대 헌덕왕 13년(821) 무렵에 귀국한 도의(道義)로부터 비롯되어, 고려대에 수미산문(須彌山門)과 희양산파(曦陽山派)가 이루어짐으로써 완성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요지.

이어 성본스님(동국대교수)은 '신라선의 사상적 특성'에서 "신라선종의 독창적인 특성은 화엄불교의 토대 위에 조사선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신라선의 특성을 무염의 무설토(無舌土:깨달음의 세계는 언어문자로 표현할 수 없다는 言語道斷의 세계)론을 중심으로 조명한다.

'낭혜무염의 무설토론'을 발표하는 현각스님(동국대교수)은 무설토론이 중국의 앙산(仰山:813~891)에게서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앙산의 나이보다 무염이 13세가 앞서며 두 스님간에 서로 만난 기록이 없다는 것. 또 설사 만났다 해도 앙산이 31세 이전에 무염을 만난 것이 되므로 앙산의 사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재〉

대구경북 BBS 설립 범종단 추진위 구성

대구·경북 불교방송 설립추진의는 지난 6일 동화사등 5개 본사 주지스님들과 태고종 혜공스님, 진각종 진산대정사가 참석한 가운데 3차회의를 개최하고 '범종단 설립추진위'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선과 관련 본·말사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 지역불자들의 불교방송 설립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11월말까지 각본사차원에서 설립자본금 일정액을 납부키로 했다.

자원봉사단 모집

btn부산·경남후원회

불교텔레비전 부산·경남후원회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할 자원봉사단원을 모집한다. 부산·경남지사 자원봉사단은 간병 장애자 수발등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051)645~5114

불방특위 해체요구

재불련등 재가단체

재가연합 전불련등 재가 6개 단체는 지난 9일 '불교방송의 정상화와 개혁을 바라는 우리의 견해'를 통해 "불방특위를 조속히 해체, 새로운 사장을 중심으로 불교방송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의견을 모아 불교방송을 정상화 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불교방송의 경영권독립이 필요하다"며 "조계종은 방송의 경영과 운영의 원칙을 차지하기보다는 경영요직에 대한 감독과 견제를 통한 영향력행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진흥원은 도덕적으로 의심되는 정치인인 정동호씨를 사장으로 추천함으로써 올바른 권한행사에서 일탈했다"며 "재가불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가단체대표에게도 이사지분을 배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6개 단체는 재불련, 전불련, 대불청, 대불련, 대불련 총동문회, 여불련 등이다.

진기 49년 추기 스승강공회

총인원서 18·19일

진각종(통리원장 락혜)은 오는 18일~19일 양일간에 걸쳐 총인원에서 '진기 49년도 추기 스승강공회'를 봉행한다.

'맑고 밝은 마음으로 밀엄정토 구현하자'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이번 추기 강공회는 종단 산하 전 스승 및 종립학교 정교등이 참석하며 인강대종사의 강연도 개최될 예정.

한편 종의회는 오는 20일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300회 정기 종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종의회는 △진기50년 각부예산안 심의의 건 △스승복지회 발족의 건 △유치원 설립의 건등이 상정된다.

경인지역 체육대회

삼룡사청년회, 22일

천태종 서울 삼룡사 청년회(회장 황기수)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창립 18주년 및 제3회 경인지역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경인지역 청년회의 화합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체육대회는 약 30여개의 청년회가 참석할 예정이며 줄다리기, 축구, 배구등의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남대충대종사 열반재

천태종 26일 구인사서

천태종(총무원장 전운덕)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종단 간부스님을 비롯 전국 각지역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본산 구인사에서 남대충대종사 제2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한다.

3존불 봉안 점안식

탑골공원 원각사

종로3가 탑골공원 원각사(주지 보리)는 3존불(석가모니불·지장보살·관음보살) 봉안 점안식과 범종타종식을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봉행한다.

표류하는 중앙승가대

목탁소리

도 필 선 〈취재2부 기자〉

중앙승가대학이 표류하고 있다.

소쩍새마을 인수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교직자의 비리로 인해 빚어진 학교 내부의 문제가 종단적 사안으로 비화, 중앙승가대 학사이전까지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가시화돼 버린 학교문제에 대해 종단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종회와 총무원 교육원 재단 학교 등 합동으로 '중앙승가대학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학교 이사회는 지난 7일 대책위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승가학원 정관에 중앙승가대학 이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갈길 바쁜 중앙승가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교수 교직원 학생 동문 등 학교 구성원들은 자율적 해결을 원칙으로 외부세력의 개입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또 중앙승가대 일각에서는 종단의 학장사퇴 종용과 학교이전 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학사이전을 전면 백지화하려는 의도와 학교를 종단의 통제하에 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학교의 어려운 처지에 현명하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했던 학생회가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한데 모으지 못하고 분열의 양상조차 보이고 있어 학교는 더욱 슬령이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발전과 학사이전이라는 근본취지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현안 해결의 방향설정에 있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학교발전위원회 운영협의회 교수협의회 재학생등 학내 각 주체의 분분한 움직임은 학사이전을 더더욱 '험겨운 불사'로 만들고 있다.

할일도 많고 갈길도 먼 중앙승가대학은 언제 안전한 포구에 정박할 것인가. 소쩍새마을 사태와 학교내부 분열로 인해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통일된 기구의 설치와 교육불사 차원에서의 의견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다.

하루빨리 승가교육의 전당이 안정되어야 한국불교의 미래도 희망적일 수 있다는 상식적인 바람을 관계자들은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마지막호도기회

60년만에 찾아온 을해(乙亥), 복 돼지해 윤달

최고의 윤달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25일부터 윤(閏)8월

오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음력으로 윤(閏) 8월이다.
장의용품 업체에는 수의(壽衣)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반면 예식장 및 이삿짐업계는 예약이 끊겨 울상이다.
올해는 60년만에 찾아 온 을해(乙亥)년 "복 돼지"해.
하늘과 땅, 남녀 등 모든 음양이 "합일(合一)을 이뤄 올해 낳는
신생아들은 최고의 사주팔자를 지니며, 윤달에 결혼이나
이사를 하면 해롭고, 수의를 마련하면 재앙이 들지 않는다는 속설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세시풍습중 윤달이 든 해에는 집안의 연로하신 어른께
효심을 전하기 위해 수의를 지어 올리는 미풍양속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무병장수하신다하여
수의를 미리 준비하여 갑작스런 장례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세상은 변했어도 노부모님에 작은 소망은
누구나 한결같이 간절합니다. 〈서울신문 95.9.18 보도내용〉



수의 가격 조견표

품 명	시중가	행사가	비 고
품4호(마)	640,000	350,000	일반품
품3호(천연마)	1,360,000	680,000	천연마 100%
품2호(보성포)	1,960,000	980,000	대마 수제, 순창 강포
품1호(특손삼베)	4,500,000	2,200,000	특산단지 지정품 특대마 100%

※댁으로방문하여 증류별 비교하여 드립니다.



캐디락 리무진 장의차

*전 회원에게 리무진 이용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 고급제품은 겹 삼베로 제작됩니다.
※ 남자 19가지, 여자 18가지 갖은 수의입니다.
※ 본(주)원품 수의는 특허청 의장등록 제159132호로 등록되었으며 능어촌 특산단지에서 생산된 고급제품으로 품질이 보증됨.

장례 토탈 서비스 안내

갑자기 상을 당해 당황하는 상주님들을 위하여
임종에서 장지까지 전과정을 신속하게
무료 서비스합니다.

** 서비스 안내 **
■ 국내최초 장례무료 상담전화 개설운영 24시간
■ 장례행사 대행(전국체인연결) ■ 표지상담알선
■ 파출부, 도시락(음식) 알선
■ 현재 평생회원제도 운영中(91년시행)

※이조목제기·병풍을 전시(윤달기간 할인판매)※



고급 오동박스

※전 제품을 장기보전용 오동박스로 포장하여 드립니다.

찾아오시는길





※ (주)원품은 손삼베 전문업체 입니다.

※수의판매 이익금 일부로 무의탁노인, 청소미화원, 뼁소니차 사망시 수의를 무료로 드립니다.

신용카드 구입시 18개월 장기분할
※일반할부가능

전국취급점모집
공휴일 및 주·야 24시간 전화상담받습니다.

본사영업부 (02)566-7676 종로:3673-5226

■광역시
부 산
대 구
인 천:462-3562
광 주:361-1349
대 전:627-9575

■경기도
수 원:216-6336
고 양:913-2181
원 당:915-4097
구 리:557-2166
성 남:721-5782
부 천:323-6484
분당·이천:(0342)756-8841
일산·파주:(0344)977-0031
김포·강화:(0341) 82-2818
안 양: 61-0336
안 산: 80-6690
의정부:876-8872
평 택:655-0966

■강원도
춘 천
강 릉
속 초
원 주

■충청도
천 안:582-3612
온 양:545-1533
청 주
홍 성
대 전
서 산

■전라도
전 주: 85-5130
군 산:452-0386
이 리:832-1944
정읍·김제: (0652)231-7694
목 포
순 천
여 수

■경상도
진 주:43-0880
경 주
구 미
포 항
마 산
거 제
진 해

충 무

■제주도
제 주:58-3023

(주)원 품
TEL 566-7676
제1공장:광주(주)반 석
제2공장:(특산단지)보성군 벌교읍 마동리